


<div>  <p>국립전주박물관 Jeonju National Museum</p> </div>	<div> <p>■ 국립전주박물관 2019-34</p> <p>■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김왕국 학예연구사 Tel. 063-220-1038 kkingdom77@korea.kr</p> </div>
	<div> <p>■ 2019. 12. 11. 배포</p> <p>■ 따로 붙임: 사진 자료</p> <p>■ 총 2매</p> </div>

**보 도 자 료**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

## “1500여 년 전 영호남 교류의 상징, 전북가야를 말한다.”

### 국립전주박물관 · 고령 대가야박물관 학술도서 『전북에서 만난 가야』 공동 발간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고령 대가야박물관(관장 신종환)과 함께 학술도서 『전북에서 만난 가야』를 공동 발간하였다.

지난 2018년 국립전주박물관과 고령 대가야박물관은 ‘영호남 화합’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역사적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전북 지역의 가야문화>에 대한 전시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 전시를 계기로 고고학 및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뜻을 모아 이번 학술도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전북에서 만난 가야』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북지역의 가야문화를 소개하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총 4편의 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본격적으로 전북지역의 가야세력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 당시 한반도 남부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는 주보돈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의 「5~6세기 한반도 남부지역 정세와 가야」, 전북지역의 가야문화가 고령지역의 대가야문화와 유사성이 깊다는 것을 고총(古塚, 거대한 옛 무덤)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조영현 대동문화재연구원장의 「대가야와 그 이웃들의 고총」이 실려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활발하게 조사되고 있는 고고학 자료를 이용하여 전북지역 가야 사람들의 흔적을 보여주는 광장근 군산대학교 교수의 「고고학으로 밝혀낸 전북의 가야문화」와 함께 과거의 거대한 무덤이 갖는 고고학적 의미에 대해 알려주는 김대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기념물로서의 가야 고총」으로 이어진다.


이 책은 1500여 년 전 한반도 남부 동서교류의 주축을 담당하였던 전북가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대 우리 사회에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앞으로 전국의 국공립도서관을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에 무료로 배포되어 연구자뿐만

일반 시민들에게 전북 가야문화를 알리는 자료로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붙임]



국립전주박물관·대가야박물관 공동발간 학술도서 『전북에서 만난 가야』

<div>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div>	<p>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주박물관 김왕국 학예연구사(063-220-10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